

제 139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西川祐子 (니시카와 유코- 전 교토문교대학 문화인류학 교수 전 인간학연구소 소장)

주제: 문학에 나타난 생활사

젠더론과 젠더 역사를 연구하시는 니시카와 유코 선생님께서는 이번 강연에서 선생님의 연구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주거와 도시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그 안을 흐르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연구에 대한 강연을 하셨다. 선생님의 연구의 목표는 공간론과 시간론을 종합하는 것이지만 오늘 강연에서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셨다. 니시카와 선생님은 연구와 관련하여 『借家と持ち家の文学史—「私」の器の物語』, 『近代国家と家族モデル』, 『住まいと家族をめぐる物語—男の家、女の家、性別のない部屋』, 『日記をつづるということ - 国民教育装置とその逸脱』 등의 책을 출간하셨다.

니시카와 선생님은 일본식 근대 가족모델과 주거모델의 변천을 이중구조로 설명하시면서 1920년대와 1970년대로 나누어 제시하셨다. 1920년대 이전의 가족모델의 이중구조로는 '집'가족과 '가정'가족이 존재했는데 '집'가족은 부모 - 자식 관계와 조상 숭배를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이고 '가정'가족은 부부 관계와 성애를 포함한 가족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족의 개념이 1975년경에 이르러서는 '가정'가족과 개인이라는 이중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천은 가족을 담는 그릇의 의미를 지닌 주거모델의 변천의 맥락에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니시카와 선생님은 1920년대의 '집'가족이 거주하는 난로가 있는 집, '가정'가족이 거주하는 안방이 있는 집, 1975년경의 '가정'가족이 거주하는 거실이 있는 집, 개인이 거주하는 스튜디오(원룸)를 설명하며 가족모델과 주거모델의 변천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주거모델의 경우 현대의 일본에는 앞서 말한 네 개의 주거모델이 공존하고 있음도 함께 덧붙였다. 선생님은 가족과 주거모델의 변천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함께 가족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하면서 일본형 근대 가족모델과 주거모델 변천의 네 가지 특징(i. 국가정책이나 미디어와 사회의 현상을 선행함, ii. 전환기의 사회 구조 및 의식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짐, iii. 각각의 모델의 변천 속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남, iv. 일부일처제라는 결혼 이데올로기 안에서 "家庭" 가족의 형태는 1920~1975년 사이 동안 유지되어왔다. 향후 가정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니시카와 선생님은 앞서 설명한 일본형 가족모델과 주거모델이 일본 문학에도 드러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일본의 근대문학에는 '私小説'이라는 장르가 존재했는데 '私小説'은 일인칭 시점, 즉 '나'의 시각에서 그려져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은 그대로 저자의 심리의 행동임을 나타내는 장르라고 볼 수 있다. '私小説'은 주로 남성 작가가 "집"을 나와 "가정"가족을 이끄는 새로운 가장이 될 때까지 고난과 고뇌를 그린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남성 작가들이 '私小説'을 통해 새로운 가장 의한 "가정"가족 형성의 투쟁과 고뇌를 그리고 계속하는 동안, 여성 작가들은 '가출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수도권 전세, 아파트 등 위안 곳을 전전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최근의 소설 속에서는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 등에서 보여지듯이 주인공들이 혈연관계, 성애관계에 국한되지 않은 새로운 유대관계의 가족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니시오카 선생님은 지난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폐허가 된 전후 일본이 가족의 재편에 의해 국가가 재편되었고 이로 인해 건설된(허영의) 도시가 재해로 인해 다시 폐허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재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라는 질문과 함께 강연을 마무리했다.

<질문과 답변>

질문 1. 현대의 가족관계는 기존의 관계 뿐 아니라 독신, 이혼의 증가로 인해 가족관계 자체가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주거)공간은 어떻게 나누어져야 할까요?

- 요즘의 주택가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건축가가 지은 주택은 집의 문이나 화장실, 욕실도 투명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요즘의 주택은 Public과 Private 사이의 공통의 공간을 만드는 개념이 필요하고 설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 한국 문학과의 차이는 잘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역사적 변화는 있겠지만) 한국 문학으로 보면, class의 문제, 집의 문제가 있습니다. 1930년대의 소설에서도 집과 가문 문제가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문은 문제가 아니라 집만이 문제이고 1970년대에도 가난한 사람의 share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부자들은 가문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도 한국의 부자들 드라마의 이미지는 가문이나 큰 가족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캡슐호텔 같은 곳에 산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물론 역사적인 변화도 있지만, 클래스적인 문제를 일본문학에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저는 이 이야기는 클래스의 문제로서는 중요한 것은 중간층의 육성 라는 것, 중간층이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간층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갈 것인가라는 질문의 중점은 1975년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의 일본은 사회 계층간의 격차가 가장 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일본 사회는 아마 전세계의 사회 중에서도 격차가 가장 작은 사회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간층 성립에 있어서 (부의)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중간층이 늘고 분배가 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안에서 그 사회가 밖으로부터 어떻게 분배의 파이 크기를 늘려갔는가를 포함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3. 강연 중에 부엌의 부분에 있어서는 카운터키친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주부가 가족을 보면서 조리를 하고 그곳이 그만의 공간이 되는 느낌인데 그것도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키친이라는 변형된 키친 -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카운터키친이라는 격리된 공간이 아닌, 주부가 등을 돌리고 조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카운터키친이 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격리되지 않았지만 가족과 마주보면서 조리하고 벽까지 생기고 하나의 방이 된 것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가정가족과 관련성이 있는지요?

- 현대사회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고 중상층이라는 의식을 가진 집 안에는 가족의 체재 시간이 극도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잔업이 점점 늘고, 부인은 파트타임에 나가고, 아이는 학원에 가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족의 체재 시간이 줄어 집에 살고 있는 것은 고령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전업주부가 있었던, 중간층이 있었던 것도 1925년~75년의 사이의 인구의 그렇게 많지 않은 비율, 하지만 그게 모델이므로 그 이데올로기를 모두 믿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선생님의 도시주택 논문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주택문제가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한 주택문제를 주택뿐만이 아닌 지역 등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요?

- 아까 가설의 이야기에서도 지진과 원전재해 후에 각 都府県은 피난 가족을 몇 십, 몇 백 세대의 단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부로부터 공영 주택을 중심으로 몇 백 세대가 들어왔지만, 하지만 행정부는 빈 집으로 들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가족에서는 다르지 않은 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창 일할 때의 사람들은 거기를 벗어나면 소유권의 포기가 되고, 매수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현장 가까이 남지 않으면 안되므로, 아이들은 방사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으니 밖으로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을 묶어서 생각합니다. 그건 새로운 수단이지만 준비하는 것은 가족용 방 밖에 없다라는 문제는 도처(隨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